

기대감에 공직사회 활기... 업무보고 준비

文 공약 중점 차분히 준비

행정부 세종청사 이전
교육부 축소 우려 걱정도

‘무리한 정책 추진은 없어’

새 정부가 들어선 1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랜 만에 공직 사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후반부터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공직사회는 의욕상실, 정체성 혼란 등 침체에 빠져 있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고무늬 분위기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긴급근무회의를 소집해 새정부 출범 이후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다.

복지부 직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 내에서 인·사·재·정·금의 업무 협의가 차분한 가운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도 문 대통령이 노동 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의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는 마쳤지만 보고 형식이나 참석자, 시점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나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업무보고는 이 부분에 중점을



“대통령님을 보기 위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세먼지 콘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부처와 부처, 부처와 지자체간 업무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또 ‘변갯벌에 콩 구워먹기식’ 정책 추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자 단 며칠 만에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삼일 만에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

서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내각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문 대통령이 취임선서 행사에서 ‘공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서울청사에서 세종 청사로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행정부 과장급 공무원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언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면서도 “예산도 필요하고 청사 이전을 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부 축소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정일 중 파견직이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는데, 몸집을 더 줄이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교원 양성, 임시제도 등은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무작정 시도 교육청에 넘기면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조치가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정책 추진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당청의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으로 교육부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아내야 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文, 1호 업무지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토록 했으며 경제부총리는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본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로 이같은 명령을 하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종석 심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일지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며 “선거과정에서 확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간절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새 내각의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택한 것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지명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지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뉴스

민주당 도당, “대통령과 잘사는 전북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당선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당령과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탄소산업육성 및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연금금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새로이 만들어갈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며 “이제껏 소중한 순간들을 쌓아 올렸듯, 문 대통령과 함께 오랜 역사를 면면이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 전국 최고 득표율로 문재인 당선 견인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득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로 전국 평균 득표율 41.1%보다 23.7%p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표심이 문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4.8%에 이르는 전북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지난 3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후보 지지율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사실 여론 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내부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다고 65%에 근접하는 지지율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전북은 문 후보에게 80%의 지지율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는 광주와 전남에 이은 세 번째 순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주의 61.1%보다도 3.7%p가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4위와 5위마저도 5% 이상을 득표할 만큼 유력한 후보들로 구성된 5자 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전국 평균 41.1% 득표만으로도 놀라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터라 전북의 득표율은 가히 압도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23.8%),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4.9%) 등 이른바 진보 후보가 전북에서 얻은표는 93.5%다. 이는 지

난 14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전북에서 얻은 지지율(93%)과 거의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북 도민은 19대 대선을 20년전 14대 대선과 같은 분위기로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전북 분위기는 ‘닥치고 정권교체’였다.

정권교체의 인식 속에서 막판 문 후보에게 표가 쏠린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북 지역 분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홍 후보가 올라가는 만큼 안철수 후보 지지가 빠졌고 빠지는 만큼 문 후보쪽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의당 심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도보다 낮게 득표한 것도 같은 이유로 해

전북 유권자 64.8% 문재인에 투표

홍준표 상승세 따른 불안감 때문 분석

석된다.

이에 대해 문 후보의 원내 비서실장이자 전북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지켜져왔던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한꺼번에 분출된 결과”라며 “차기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을 나타낸 수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결과를 발판 삼아 차기 정부에서 전북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내가 앞장서서 싸워서라도 전북 몫을 찾아와 반드시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재용 기자

국민의당 지도부 총사퇴... 박지원 ‘책임지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렇게 말한 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이 부족했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지지해주신 국민, 당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감사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안철수 후보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우리가 미흡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정보리밭!

제14회 고창 정보리밭 축제



음양고고창생물관광민지역

2017. 4.22(토) ~ 5.14(일) 23일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